

지방 사립대학의 학생 유치와 재정 문제

2003년은 한국 대학에 있어 대변화의 해로 알려져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에 모자라는 해이니 지방 사립대학으로서는 걱정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키우기 정책'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는데, 한때는 수도를 남한의 지리적 중심인 대전권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 개발로 추진되면서 수도권 억제정책을 풀어 놓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현재 한국 인구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모든 중요 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때 대학정원에까지 적용하던 인구 억제 정책이 이제는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적으로 많이 풀린 상태이다. 그 때문에 서울의 대학 인구는 적지 않게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대학 지원자가 줄고 있는 현 추세에서 그것이 지방 대학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편입학 정원의 산출 기준을 재적생 개념에서 재학생 개념으로 바뀌 정원을 크게 늘린 것이 그것이고, 야간학생 정원의 확대를 서울 소재 대학에도 허용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서울의 대학들이 이제 과감하게 편입생을 뽑고 있고 야간대학까지 폭넓게 늘리고 있으니 많은 지방 학생들이 서울을 찾아갈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입학생 중에서 휴학하는 학생이 적지 않게 생기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 설립 기준의 준칙주의 적용으로 많은 대학이 신설되어 지방대학의 학생 유치는 설상가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이른바 자유경쟁 원칙과 자연도태의 원칙을 내세운다. 여기에 머지 않아 외국의 대학들도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 일부에서 일어나는 대학의 부도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더구나 IMF 금융위기까지 겹쳐 오늘날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겪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대학이 피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대학 지원자가 지나치게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국가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인재 지역할당제' 같은 제안이 나오는 것도 문제의 핵심을



원광대 총장 송 천 은

바로 분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재 지역할당제는 잘 이용하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기관의 적절한 분배, 인재의 적절한 분배가 가지는 균형 발전의 중요성 인식은 한국 대학의 풍토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미국 대학에도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쓰지 않는 대학은 주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정책이 있지 않은가?

결국 정부 당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 사립대학의 실정을 감안한 합당한 정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점이다. 비단 사립대학뿐 아니라 국·공립대학에도 특성있는 지방대학, 자랑거리가 많은 지방대학, 강한 경쟁력을 가진 지방대학의 육성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데, 정원 총원에 별 어려움이 없는 서울 지역의 대학을 더욱 유리하게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면 지방 사립대학이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IMF 한파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약화된 현 상황에서는 '기여편입학제'와 같은,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 문제를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용이 많이 드는 의·약학 계열의 학사편입을 중심으로 해당 정원의 50% 정도는 성적을 감안하여 기여입학을 허용하면 대학은 적지 않은 경제적 보조를 받게 되고, 정부 또한 지원 예산의 부담을 줄이면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대학의 의료원장직에 있을 때, 일본 교토의 유일한 4년제 한의대학인 메이지 침구대학을 방문하였는데, 그 때 그 대학 입학생의 100%가 등록금의 두 배를 기여금으로 납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지금도 일본의 많은 대학에서 일반 등록금의 8배에서 10배까지 기여금을 받고 있다. 우리 대학은 일본에 비해 재정 지원이 불충분한 상황이므로 주위에 피해가 없는 좁은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기여 편입학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